

이번엔 새도 스트라이커...구자철 제자리 찾을까?

브라질전 수비형MF 아닌 공격수로 중용
2선 침투로 공격 조율·독점력까지 기대

2014브라질월드컵을 준비 중인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고민은 끝이 없다. 구자철(24·볼프스부르크)의 ‘자리 찾기’ 역시 그 중 하나다. 브라질(12일·서울월드컵경기장)-말리(15일·천안종합운동장)로 이어질 10월 A매치 2연전에 출격할 홍명보호 4기 엔트리가 공개된 가운데 구자철은 공격진의 일원으로 선발됐다. 9월 두 차례 평가전을 위해 대표팀이 소집됐을 당

시 구자철은 미드필드 자원이었다.

이번 선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구자철이 소속팀과 달리 대표팀에서 자신의 본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의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선수 본인도 최근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맞은 포지션 변화가) 솔직히 혼란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홍 감독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근래 대표팀은 극심한 화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다. 막힌 곳을 시원히 뚫어줄 해결사가 없다. 한국 축구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던 박주영

(아스널)의 추락에서 야기된 킬러 부재를 타개하기 위해 ‘제로(0)톱’이라는 이색 공격 전술까지 들고 나올 정도다. 그리고 구자철이 중심이었다.

일단 홍 감독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홍명 맨(수비형 미드필더)’ 구자철보다 공격 카드로서 구자철이 낫다고 본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최대 승부라 할 수 있는 브라질전을 앞두고 포지션을 공격수로 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전제는 있다. 원톱이다. 정해진 공격수 없이

플레이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1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구자철은 최전방에 나선 지동원(선덜랜드)의 뒤를 받친 새도 스트라이커로 출격했다. 탁월한 슛 감각과 공격 조율 능력으로 5골을 터뜨려 대회 득점왕에 올라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렇듯 홍 감독도 공격 2선에서 구자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번엔 소집될 대표팀에서는 지동원과 이근호(상주 상무)가 원 톱을 놓고 경쟁한다. 누가 구자철의 파트너로 낙점될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흥밋거리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이 10월 A매치 2연전에서 다시 한번 공격수로 선발되며 공격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DB

서울은 이란에서...손흥민은 유럽에서...4일 ‘챔스리그’ 원-원 출격



FC서울 최용수 감독(오른쪽)과 고영진이 에스테그랄과 AFC챔스리그 4강 2차전을 앞두고 1일(한국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테헤란(이란)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결승가는 길 ‘3중고’ 넘어라



레버쿠젠 손흥민(가운데)이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통해 UEFA 챔피언스리그 첫 골과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도전한다. 8월 리슈타트와 컵 대회 경기 모습. 리슈타트(독일) | AP뉴시스

4강 1차전 승리한 서울, 에스테그랄 원정 텃세·일방적응원·고지대 불리한 극복 과제
손흥민, 소시에다드 상대로 2연속 공격P 사냥
‘1패’ 레버쿠젠 2차전 이겨야 조별예선 승산

4일 오전(한국시간) 국내 축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연이어 벌어진다. 먼저 K리그 클럽 대표 FC서울이 결승 진출을 위한 일전에 나선다. 서울은 4일 0시30분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에스테그랄(이란)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을 치른다. 홈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해 유리한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손흥민이 출격한다. 손흥민이 속한 레버쿠젠(독일)은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갖는다.

●가자, 결승으로

서울은 이번 이란 원정길에서 ‘텃세’·‘일방적 응원’ ‘고지대’ 등 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걱정은 에스테그랄의 홈 텃세였다. 한국대표팀이 과거 이란 원정 때마다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단골 메뉴는 훈련장 배경이다. 허정무 감독 시절이던 2010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14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때 한국은 매번 눈두렁 잔디에서 훈련하며 악전고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투 분위기가 다르다. 서울은 최상급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훈련 중이다. 서울 선수단과 동행한 프로연맹 관계자

는 “훈련장 잔디는 최고다. 호텔도 시설이 조금 낡긴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경기장을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원정 팀의 무덤’이라 불린다. 에스테그랄은 경기 당일 만석을 자신했고 있다. 에스테그랄은 부리람(태국)과 8강 홈경기 때도 9만5300명의 관중을 불러 모았다.

서울 입장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은 K리그 최고 인기구단이다. 만원관중 경력이 많다. 관중이 짝 차면 경기도 더 ভাল다. 더구나 에스테그랄의 주 유니폼은 푸른색이다. 마치 K리그 최고 빅 매치 서울-수원의 슈퍼매치를 떠올리게 한다. 서울은 6월 슈퍼매치에서 수원을 2-1로 기분 좋게 이긴 기억을 떠올려 에스테그랄도 격파하겠다는 각오다.

마지막 관문은 고지대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12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이란으로 떠나기 전 고지대를 경험한 지도자들에게 상세히 자문을 구했다. 심리적인 부담만 줄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삼중고는 무의미해졌다. 이제 100% 경기력을 발휘해 결승 티켓을 가져오는 일만 남았다.

●도전,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손흥민이 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방 경기를 치를 레버쿠젠의 대회 조별리그(A조) 2차전 상대는 스페인의 ‘다크호스’ 레알 소시에다드. 최근 큰 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상당히 낯선 팀이지만 결코

얕볼 수 없다.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돌풍을 일으키며 4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올 시즌 첫 챔피언스리그 홈경기다. 내용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미 레버쿠젠은 지난 달 18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2-4로 졌다. 손흥민도 만족할 수 없었다. 당시 선발 출격해 1도움을 올렸지만 팀의 완패를 막을 수 없었다. 올해 여름 정들었던 함부르크SV를 떠난 가장 큰 이유도 챔피언스리그 출격이라 맨유전 패배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소시에다드 역시 1차전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에 0-2로 완패했다. 각 조 1~2위까지만 주어지는 대회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입하기 위해 레버쿠젠으로선 무조건 소시에다드를 꺾어야 한다.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레버쿠젠도, 손흥민도 완전히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은 6승1패(승점 18)로 3위에 랭크돼 있다. 앞선 팀들은 전통의 강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이상 승점 19) 뿐이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DFB(독일축구협회) 포칼, 챔피언스리그까지 모두 3골 3도움을 올리는 등 제 몫을 충실히 하고 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라 리가에서 1승4무2패(승점 7)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말 바이에른 뮌헨과 정규리그 속명의 대결을 치를 레버쿠젠과 손흥민은 이번 소시에다드전 승리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트위터@Bergkamp08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트위터@yoshike3

亞 유소년축구 축제 키포프

17개국 70개팀 내일부터 친선전 등 문화교류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뜻 깊은 축제가 열린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유·청소년연맹), 인천광역시 주관하는 ‘2013 아시아유소년축구 축제’가 3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말 그대로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주인공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쿠웨이트, 이라크, 말레이시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등 17개국 70여개 팀에서 1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축제는 1,2학년 부(7인제 20분) 3,4학년 부(7인제 30분) 5,6학년 부(9인제 30분)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청소년 연맹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경쟁 중심의 축구를 탈피해 축구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맹은 이번 축제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유소년연맹 창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개막식 때는 특별행사로 아이돌 축구팀과 전 국가대표 팀의 친선경기가 예정돼 있다. 가수 JYJ 김준수, 비스트 윤두준, 이기광, 뽀빠리 서지석, 개그맨 박성광 등이 속한 아이돌 축구팀이 안정환, 허정무, 조광래, 신태용 등이 나서는 국가대표 팀과 맞붙는다. 축제기간 동안 송도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선 참가국들의 장관, 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체육계 관계자가 참여해 ‘유소년 축구를 통한 아시아의 균형적 발전과 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윤택식 기자

지동원, 英 2군리그 골맛...폴타임 소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지동원이 1일(한국시간) 영국 선덜랜드의 아카데미 오브 라이트 훈련장에서 열린 반슬리와 2군 경기에서 폴타임을 소화했고, 전반 8분에는 골 맛도 봤다. 경기는 비록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선덜랜드 구단 홈페이지는 “상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멋진 슛”이라며 칭찬했다.

풋살대표팀, 내일부터 AFC챔피언십 예선전

스페인 출신의 라울 곤잘레스 에스쿠데로 감독이 이끄는 한국 풋살대표팀이 3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푸토경기장에서 열린 2014 AFC 풋살 챔피언십 동부 예선에 참가한다. 한국은 중국-대만-홍콩-마카오와 예선 풀 리그를 치러 3위에 들면 본선 무대를 밟게 된다. GK=허명범(FS서울) 이경호(서울 은평) DF=김철기, 이민용(이상 용인FS) 임경훈(부천FS) 김장균(경산오성) 정의현(전주매그) 이주섭(서울은평) 박하늘(서울광진) 김경근(한국수력원자력) 김동환(제천) FW=김민국(FS서울) 이지호, 장덕진(이상 인천코레일) 신종훈(나고야 오션즈) 김호진(전주매그).

인천, 창단 10주년기념 시민주주 명판 건립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시민주주 이름을 새긴 주주명판과 주주동상을 건립한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북측광장에 건립되며 주주연혁, 코칭스태프와 선수 소개, 주주 센터로 구성된다. 6일 오후 3시30분 FC서울과 홈경기에 앞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 4일 안주 봉동읍에 클럽하우스 오픈

전북 현대가 4일 오전 전북 안주군 봉동읍 읍소리에서 클럽하우스 오픈식을 갖는다. 연면적 241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과 실내 연습구장을 갖췄고 3년 만에 완공하게 됐다.